

민주당 텃밭 광주·전남, 운동권-시·도위원장 '공천 칼바람'

송갑석·김승남·윤영덕·이용빈·조오섭 등 '586 현역' 고배 한총련 의장 출신 강위원, 남총련 의장 정의찬은 중도 포기 광주·전남 시·도위원장 출신 현역 의원도 정치 신인에 패해

더불어민주당의 심장부이자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586세대'로 상징되는 운동권 출신과 '당직 프리미엄'을 지닌 전·현직 시·도당 위원장들이 공천심사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현역 몰감'이 광풍에 휩쓸린 측면도 있으나 당내 비주류였던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86 용퇴론'과 맞물려 예견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1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공천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현재까지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거나 아예 경선에서 배제돼 컷오프된 광주·전남 586운동원 출신 인사는 10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5명은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거센 '현역 몰감어론'을 비켜가지 못했다.

나란히 3선과 재선에 도전했다 경선 문턱을 넘지 못한 광주 서구 갑 송갑석 의원과 고흥·보성·장흥·강진 김승남 의원이 대표적이다. 둘 다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송 의원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전신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까지 지냈다. 전남 갑 윤영덕 의원(전 전남대 총학생회장), 광주 갑 이용빈 의원(전 전남대 총학 부회장), 북구 갑 조오섭 의원(전 전남대 총학 총무부장, 전남대 총학동지회 회장)도 정치신인에 패하면서 본선 진출과 재선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 중 조 의원은 경선 1위인 정준호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유동적이긴 하다.

전대협의 후신인 한총련 의장 출신인 강위원

원 민주당 당대표 특보와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자 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을 지낸 정의찬 당대표 특보는 1997년 한총련 고문치사 사건과 성추행(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면서 총선 출마를 중도 포기했다.

반면 성균관대 총학 정책국장 출신 목표 김원이 의원은 배중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제치고 어렵사리 본선에 올랐다.

서구 갑에 옥중출마하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연세대 총학생회장)와 나주·화순 신정훈 의원(고려대 학생운동, 미문화원 집기농성),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서동용 의원(연세대 학생운동, 옛 민정당 연수원 농성)의 본선과 경선성적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대협과 한총련의 동만 침몰 등 운동권의 공천 시련은 일찌감치 민주당 일각에서 '올드 보이 2선 용퇴론'과 함께 제기된 '86운동권 용퇴론'이 경선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반영됐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의 특성상 인물론이나 경력, 정책도 중요하지만 상대적



으로 '현역 심판론'이 어느 때보다 드세게 일었고, 당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노골화된 계파 갈등에 돈봉투 의혹, 신당 창당까지 복합적인 변수들이 작용하면서 운동권에 유탄이 쏟아진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현역에 당직 프리미엄까지 쥔 전·현직 광주·전남 시·도당 위원장들도 쓴잔을 마셨다.

광주에서는 시장위원장 출신 이형석(북구 을), 송갑석(서구 갑) 의원과 현직 시장위원장

인 이병훈(동남 을) 의원이 경선에서 패했고, 전남에서는 김승남 전 도당위원장이 경선에서 고배를 숙였다.

한 당직자는 "인지도가 높은 전·현직 시·도당 위원장이 공교롭게도 모두 여의도 경력이 없는 정치 신인에게 밀려 현역 교체론의 단면을 실감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민기자

이낙연, 민주당 공천에 "학살하더라도 종자는 남겼어야"

"오는 16일까지 민주당서 1~2명 더 합류 예정"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전남(12일)까지 진행된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공천 결과를 놓고 "안타깝다"며 "공천학살을 하더라도 종자는 남겼어야 했다"는 지역의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 후 질의응답에서 "이번에 광주에서 친명의로 알려진 한 분 빼고 7명의 현역 의원 전원이 탈락하는 일이 생

겼다"며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종자는 남긴다는 속담이 있는데, 초선 의원 말고 다 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 경선 결과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공천 탈락하면서 광주 8개 지역구에서 1곳(민형배 의원) 빼고는 모두 현역 의원이 경선 탈락했다.

이 대표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되려면 3선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공천 결과를 보

면 광주 의원 중에는 상임위원장이 1명도 나오기까지 앞으로 8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라며 "공천학살을 하더라도 종자는 남겨두면서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지역 입장이 있다. 시민들께서 종자는 남긴다는 심정으로 선거에 임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의원 중 1~2명 정도가 오는 16일께 제3지대 신당 새로운미래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경선 결과에만 연동되는 것은 아니고, 전부터 말씀이 있었던 분 가운데 한 두분이 이번 일요일까지 합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탈락하는 분야는 질문에는 "다른 당은 아닐 것"이라며 "그냥 한 두 분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낙연 대표가 직접 출마를 하며 공을 들이고 있는 광주에서 새미래보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현상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민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니 현상대로 인정해야 한다. 민심의 움직임을 옳다, 그르다라고 재단하는 건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광주·전남 1급 부시장·부지사 공천 '희비'

22대 총선 광주 성적표 '저조'

제22대 총선에 도전장을 낸 광주·전남 광역 부단체장들이 공천 문턱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광주는 고전, 전남은 선전 양상이다.

광주부시장과 전남부지사는 임명직 최고위(1급, 관리관)으로 분류된다.

13일 광주·전남 정·관가에 따르면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한 광주·전남 전·현직 광역부단체장 출신은 모두 6~7명에 이른다.

서구 을 김광진 후보와 고흥·보성·장흥·강진 문금주 후보는 직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뒤 공직 사퇴 시한에 맞춰 사직한 뒤 총선에 뛰어 들었다.

이들 이외에 광주에서는 조인철 전 문화경제부시장, 이병훈 전 문화경제부시장, 이형석 전 경제부시장이 나란히 서구 갑, 동남 을, 북구 을에 출마했고, 전남에서는 현직 3선 의원인 이개호 전 행정부지사가 담양·함평·영광·장성에서 4선에 도전장을 냈다. 경선 결과, 희비가 교차했다. 광주에서는 정치신인인 조인철 후보가 경선 1위로 본선행을 확정지었고, 나머지 3명은 고배를 마셨다.

전남에서는 이개호 의원이 단수공천으로 경선 없이 곧바로 본선무대에 올랐고, 문 전 부

지사는 3선에 도전한 도당위원장 출신 '586 세대' 김승남 의원을 제치고, 민주당 후보로 본선에 나서게 됐다.

역대 1급 관리관들의 성적표도 희비가 극명하다. 광주 12명, 전남 8명이 '여의도 배지'에 도전했으나 결과는 확연히 갈렸다.

광주 행정부시장의 경우 첫 스타트를 끊은 정남준 전 부시장이 2012년 19대 총선에 나섰다가 3위로 고배를 마셨고, 정중재 전 부시장은 2000년 21대 총선을 출마하던 중 민간공무원 특례사업과 관리당원 불법모집 파문으로 선출직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문화경제부시장(정무, 경제부시장)의 경우 고(故) 김태홍 전 부시장이 북구청장에 이어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형석 전 부시장은 북구청장, 국회의원에 잇따라 낙선한 뒤 2020년 21대 총선에 당선되면 2선3기에 성공했으나 재선에 실패했다.

전남 행정부지사의 경우 김영록 현 지사가 부지사 역임 후 18대, 19대 총선에서 잇따라 승리한 뒤 재선 전남지사로 도정을 이끌고 있다. 이개호 전 부지사는 2012년 19대 국회 때 여의도에 입성한 뒤 3선에 성공하며 현재 제1야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다.

이슬비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